

전국 최고의 고급육생산 기초를 다지다.

범당골 농장 - 신갑섭 농가

전북지역본부 나강호 과장



신갑섭 사장

한국치즈산업의 원조 전북 임실에 위치한 '범당골 농장'은 대를 이은 축산농가이다. 신갑섭 사장의 부친은 임실치즈공장설립의 구성원으로 1967년 산양으로 시작하여 1997년까지 젖소사육을, 이후 소 사육은 한우고급육 생산에 있다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한우사육을 시작하였다. 한우사육 전환 후 하이마블에 가입하여 고급육과 거세우 사육의 기초를 다졌고 현재 단품미인한우에서 활동 중이며 2008년 제10회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축산언론 분야에서 종사하던 이들 신갑섭 사장은 한우산업의 대를 잇기 위해 3년 전 귀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육현황 - 임실의 대관령은 범당골

현재 범당골 농장에는 11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특히 암소들의 방목장은 마치 대관령을 연상하게 한다. 이 번식암소들은 3만여평의 방목장에서 윤택방목을 실시하여 지체불량이나 번식장애가 전혀 없으며 최적의 BCS(신체충실도)를 유지함으로써 우량암소의 번식공용연장을 추구하고 있다.

사양관리

육성기는 골격형성, 비육전기는 중체, 비육후기는 근내지방도 증대에 목표를 두고 사육하고 있으며, 암소의 경우 15개월령 이상이고 생체 중 250kg 이상일 때 종부시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는 새끼소에 대한 고급육생산의 기본이라고 강조한다. 사료급여는 3단계로 구분하여 이유 후~13개월까지는 육성우TMR, 13개월 후 생체 중 550kg까지는 비육전기 사료를 급여하고 550kg의 목표체중 도달 후 750kg 이상까지 비육후기사료를 급여하고 있다. 초음파측정은 27개월과 30개월 2회에 걸쳐 실시하는데 등지방 두께에 따라서 1차적인 출하시기를 결정하고 과비하지 않으면 개월수나 체중에 여유를 두고 1*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근내지방도 형성에 온 정열을 쏟는다.

〈육질등급 출현율〉 거세우 1등급 이상 100%

육질등급	1**	1*	1	2	3	등의	계
출현율	9.1	27.3	63.6	-	-	-	100
전국평균	13.2	30.9	32.5	20.4	2.5	0.2	100

향후계획

신갑섭 사장은 한우핵군육종연구회 회원으로 우수정액을 이용한 '암소개량'에 전념하여 평균 5~6산 이상으로 활용하면

서 거세우 출하 후 배최장근 단면적이나 근내지방도가 우수한 개체에 대해 그 어미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수한 어미의 번식이용기회에 대한 활용이 일본화우(평균 10산)와 비교하여 너무 짧다며 번식활용기능을 최대 이용한 암소사육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향후에는 거세우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최대 8산까지 이용할 계획이라며 본인이 직접 인공수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가 인공수정 설비를 갖추어 체형과 육질 개선 등 한우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의 당찬 포부와 향긋한 마소에서 머지않아 전국 최고의 육질등급 생산농가로 자리매김 할 것을 기대해 본다.

